

프랑스 사회당의 길과 영국 노동당의 길 - 공통점과 차이점

앙리 베버(Henri Weber)

번역 : 박정현 브레반대 역사과정

역자 주 : 프랑스 사회당은 1999년 봄에 「사회주의 리뷰」를 재창간하였다. 1886년에 창간된 이 잡지는 지난 한 세기 동안 프랑스 사회주의와 함께 부침을 거듭해왔다. 「유럽 사회주의: 더 나은 길을 위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재창간호는 「제3의 길」을 특집으로 싣고 있다. 아래에 번역된 글은 앙리 베버는 프랑스 사회당 중앙당 비서로 있으며, 「사회주의 리뷰」의 재창간을 주도하였고, 이번에 그 편집장을 맡았다.

「사회주의 리뷰」 편집자 주: 유럽의회 내에 프랑스 사회당 및 영국 노동당 출신의 의원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모임이 있다. 이 모임은 두 정당의 정권수행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의견대립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생겨났다. 1999년 1월 6일에 이 모임은 앙리 베버를 초청하여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에 실린 글은 이때 제출된 보고서이다.

* 출처: Weber, Henri, Parti socialiste et New Labour: convergences et divergences, in: La Revue Socialiste, n° 1, Printemps, 1999, Paris, p. 18~31

오늘날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자기 개혁의 과정에 있다. 길고 험난한 자신의 역사 속에서 유럽 사민주의는 이미 여러 차례 이같은 자기개혁을 수행한 바 있다. 태어난 지 1백년도 넘는 사회민주주의가 여전히 주변화 또는 폐물화 되지 않고 유럽대륙의 주요 집권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자기 자신을 재점검하는 성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의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조응하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전부터 우리 사회 및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엄청난 변환은 불가피하게 이같은 자기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환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의 새로운 단계”的 도래이다. 참고로 이 변환의 주요한 모습들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양식과 소비양식, 그리고 이와 함께 계급구조와 사회갈등의 틀을 뒤흔들어놓고 있는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확산. 둘째,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힘겹게 정착된 조절양식들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경제·통신·문화의 세계화. 셋째, 국가기구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사회보장비 지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저성장시대의 재도래(장기간에 걸친 평균 2% 성장). 넷째, 복점 공과금의 인상을 어렵게 만들고 신중간층의 조세저항을 강화시키고 있는 “개인주의 사회”的 도래 등등.

이 네 가지 경향들 및 다른 경향들이

조합되어 “노·사·정” 사이의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있다. 이때 균형파괴의 방향은 기업 경영자들 및 금융기관 의사결정자들과 같은 경제력의 사적 보유자들에게 유리하고, 임금생활자들 및 국가기구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세력균형은 노동조합과 좌파 정치 세력이 수십 년 동안의 투쟁을 거치면서 한발 한발 힘겹게 쌓아올린 것이었다. 노동운동이 시장권력에 맞서는 대칭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량도 바로 이 세력 균형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로 말미암아 전후의 사회민주적 태환이 시비거리로 되고, 새로운 역사적 태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미래의 사회민주주의가 가져야 할 강령, 정책, 그리고 조직양식에 대한 논의가 모든 사회주의 정당들, 그리고 유럽사회주의정당(Parti des Socialistes Européens, PSE) 안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의견차이가 적지 않다. 이때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의 신노동당은 상반되는 양극단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나는 이같은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민주의 내에 강한 상호접근 경향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경향은 어쩌면 지금까지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

어쨌든 원칙의 불일치보다는 각국 상

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삼고¹⁾, 담론이 아니라 실제정책을 살펴볼 경우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말이 차이점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부터 나는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 및 차이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이때 나는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차이점들을 부각시키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공통점

프랑스 사회주의당과 영국 노동당은 우선 기업, 특히 첨단기술부문 및 서비스 부문 기업의 창출, 발전, 그리고 국제적 진출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양편이 볼 때 이것은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경제구조를 고부가가치 부문으로 재조정하기 위하여, “정보사회”로 진입하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국제 노동분업 체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양편은 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만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 사회의 학교화” 및 “생애교육”이 필요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사회주의당과 노동당은 사회보장 국가

체제의 개선을 지지하고 있으며, 개인들을 피부양자의 지위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에 재편입시키고, 노동시장에 재통합하는 일을 국가기구의 실행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혜로운 사회보장국가(Etat-providence intelligent)”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이고, 개인의 필요에 더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며, 전통적 위험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저하, 가족제도의 파열, 장기실업 등) 새로운 위험들에 대해서도 보장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비속련 노동력의 비용을 낮추고, 계속적인 직업교육을 주선하고, 비정규 시장체제에 대한 불이익을 없애고,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과 사회부조를 연계시켜야 할 것이다.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은 공공부채를 줄이고, 재정압박을 덜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적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건들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공공지출의 규모를 안정시켜야 하며,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프랑스에서 공공지출의 증가율은 지금부터 3년 동안 1%로 제한될 것이다 (1999~2002). 그리고 국회는 공공지출의 효율성을 검토하기 위한 설무팀을 구성하였다. 르랑 파비우스를 팀장으로 하

1) 피상적 차이로부터 ~ 이 차이만 하더라도 벌써 중요한 것이지만 ~ 심층적 차이의 순서로 나열해보자면 선거제도의 차이, 정치 및 정당체제의 차이, 노·사·정 관계의 차이, 국가기구와 민간사회 사이의 관계양식의 차이, 경제가 세계화 장에 편입되고 있는 링식의 차이 등을 꼽을 수 있다.



사회주의인터내셔널(SI) 회원 정당들의 로고, 왼쪽부터 남아프리카의 ANC, 유럽사회주의정당, 독일 시민당, 오스트리아 시민당

는 이 실무팀은 “더 적은 공과금을 걷어서 더 잘 쓰기 위한 실질적 제어”라는 지혜로운 계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된다.

양편은 기업을 국유화하는 방법을 공공권력이 행위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도 최선의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국유화라는 방법은 어찌면 너무 공상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공공주주는 능란한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잠자는 주주”로 처신하고 있다. 심지어 국영기업의 관리를 맡고 있는 정부의 여러 부서들이 관리조정회의에 나와서 각자 자기 부서의 일만 챙길 경우에는 “분열된 주주”로 행동하게 된다. 또한 이 방법은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는 필수적인 구조재조정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회적 계약을 통하여 기업의 의무조항들을 정의하고, 국가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조절주체가 관리하도록 만드는 방법이 어찌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조절방식일 수도 있다.

국가기구의 경제정책은 무엇보다도 기

업들의 창출 및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사회간접자본, 직업교육, 국민보건, 정보조사, 세금제도, 노사관계, 국토관리 등등). 또한 국가기구는 자신이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기업 및 산업부문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행위자로 처신해야 한다.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은 “주주사회(société d'actionnaires)”가 아니라 “동참사회(société de partenaires)”를 진작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동참사회란 사회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고려되는 사회이다. 이에 반하여 주주사회란 자본의 보유자들이 알맹이를 챙기고, 임금생활자들은 언제나 더 큰 불안정과 더 큰 회생에 만족하도록 부추기는 사회이다.

또한 공공치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양편은 “범죄예방”, “범죄견제”, “범죄억제” 등 전형적인 개념들 각각에 등등한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범죄의 원인들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토니 블레어는 말했다.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이유를 인정하는 만큼 범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문제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리오넬 죄스滂은 말하고 있다.

또한 “책임” 개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의무없는 권리 없고, 책임없는 자유 없으며, 시민정신없는 공화국 없다.” 블레어식(式) “공동체주의” 철학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이 원칙은 또한 프랑스 사회당의 “시민권”에 대한 정의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각종 제도들의 민주적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의 개혁의지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가 통과시킨 지방분권화법의 대단성을 가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법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 커다란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다.

바로 이같은 공통점들 때문에, 유럽연합(EU)의 전로 재설정을 위하여 지난 18개월 동안 여러 차례 개최된 유럽정상회의에서 경제성장과 사회진보를 향한 중대한 진전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바로 이같은 공통점들 때문에 우리는 199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 조음하여 채택된 “유럽사회주의당 선언”에서 21개 조항에 합의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양면의 의견차이와 관련하여 나는 지금부터 일곱 가지 차이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때 7이라는 숫자는 “7대죄”의 7파는 아무 관계가 없다.

신케인즈주의 대 사회적 자유주의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시장경제의 엄청난 장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장경제의 한계도 강조하고 있다. 대뜸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 시장의 힘은 결코 경제적 최적상태로도 사회적 최적상태로도 이끌고 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시장의 힘은 경우에 따라 자연파괴 및 사회 붕괴로 이끌고 갈 수 있다. 이를바 “호랑이들” 또는 “용들”로 불리던 동남아시아 국가들, 브라질,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의 인민들은 이 사실을 체험으로 알고 있다. “자본주의는 어디로 전진하는지도 모르면서 전진하는 힘이다.” 리오넬 죄스滂 수상이 1998년 8월 라로셸 대학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점이었다. 달리 말해서 이 힘은 벽에 자신의 머리를 쳐박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민대중은 자본주의의 전로를 조종할 수 있는 수단방법을 가져야만 한다.

우리가 볼 때 공공권력의 역할은 시장에 내재된 국단성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데 국한될 수 있으며, 경제적 경쟁의 “승자”와 “패자” 사이에 최소한의 연대를 계도적으로 보장하는데 국한될 수도 없

시장의 힘은 결코 경제적 최적상태로도 사회적 최적상태로도 이끌고 가지 못한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시장의 힘은 경우에 따라 자연 파괴 및
사회 붕괴로 이끌고 갈 수 있다.

다. 지금은 국가기구 및 유럽연합의 조절 행위, 재분배행위, 그리고 필요할 경우 직접적 기업행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때이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블레어의 노선은 이론적으로 케인즈주의의 모든 형식들을 기각하고, 경제적 자유주의의 근본원칙들을 자신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신노동당의 이론가인 앤쏘니 기든스에 따르자면,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의해 고안된 정책, 즉 수요 및 투자를 촉진하는 공공정책은 이제 유럽에서 작동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것은 대기업들 및 경제의 세계화 때문만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전략적 개인의 등장이라는 사회문화적 변환 때문에 그러하다. 전략적 개인은 예측 불가능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경제적 조치들을 빠져나가고자 하며, 또 빠져나갈 수 있다.²⁾

토니 블레어와 그의 자문가들이 볼 때, 자본주의는 총체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 시장은 언제나 국기기구보다 더 영리하고, 기업가들은 항상 공무원들보다 더 용의주도하다. 그러므로 기업가들을 묶

어두고 있는 굴레를 풀어야 하고, 그들의 역동적 행위가 가져오는 변화에 조응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구의 개입은 자원을 할당하는 시장의 자유로운 게임이 초래하는 결과들을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교정하는데 머물러야 한다. 이때 국가기구는 무엇보다도 경제의 역동성에 제동을 걸지 말아야 한다.

적극적 거시경제정책

경제계획과 관련하여 볼 때 영국 신노동당은 신자유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사회당은 신케인즈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1997년 이래로 자본주의가 체험하고 있는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가 후퇴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쩌면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같은 차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정책노선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2) 앤쏘니 기든스,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 1994.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이 볼 때,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고용창출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제정책이 여전히 필수불가결하다. 그리고 이 말은 모든 차원에 지역과 일국 차원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는 유럽과 전세계 차원에 해당되는 말이다. 물론 거시경제정책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그 강도는 바뀌어서는 안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유럽을 단순히 자유교환의 보장되는 경제공간으로 방치하는데 반대하고, 유럽의 공공권력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도 단호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유럽중앙은행에 맞서는 유럽차원의 경제적 권위주체를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권위주체는 유럽통일화폐 "유로"에 대한 조정회의로부터 출발하여, 각국의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샤프들로르가 기안한 "백서"에 담긴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실행에 옮기는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유럽 차원에서 사회적 계약을 협상할 공간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문제점들에서 우리의 신노동당 쪽 동지들은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 국가체제의 개선

프랑스 사회당은 이를바 "구식 사회

보장 국가체제"와 "현대식 사회보장 국가체제"를 서로 대치시키는 견해에 반대한다. 이 견해에 따르자면 구식 사회보장국가는 사회부조의 형식으로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며, 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괴부양자 사회를 낳고 있다. 이에 반하여 현재적 사회보장국가는 (일반교육, 계속적 직업교육, 국민보건 등) 사회적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이에 따라 소외자들을 차차 노동세계에 재통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같은 대치는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며,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부조와 사회적 투자는 다같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념으로 천명하고 있는 사회적 민주주의는 사회적 보호장치 및 부의 재분배장치를 포함한다. 이 장치는 개선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강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괴부양자 사회"와 그에 내재되어 있는 추락의 늪에 빠지는 것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양극화 사회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에도 반대한다.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빌어서 말하자면 우리는 "2/3 사회", 즉 사회구성원들 중 2/3는 통합되고, 실업자, 불안정 노동자, 빈곤 노동자 등 1/3은 소외되는 사회에 반대한다. "조건의 균등(égalité des conditions)"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 "기회균등(égalité des

chances)" 이란 하나의 공상에 불과하다.

토니 블레어 정부는 유럽연합의 사회 현장에 서명을 하였다. 그의 정부는 영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법을 도입했으며,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15만 개 창출하였고, 교육과 국민보건을 위한 재정지출을 증대시켰다. 또한 그의 정부는 마가렛 쎄처가 추진한 재정법 및 사회 법의 개악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으며, 최근에 사영화된 기업들의 엄청난 이윤에 대한 과세를 통하여 새로운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다. 그런데 18년 동안의 쎄처주의 이후 영국이 현재 보여 주고 있는 사회적 재분배의 수준이 과연 국민보건체계, (일반교육 및 계속교육을 포함하는) 교육체계, 그리고 사회보장 시설들을 진작시키기에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영국 노동당 등지들이 대답할 노릇이다. 어쨌든 이 질문은 유럽 차원에서 재정정책 및 사회정책을 조율해야 할 필요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유지, 개선, 발전

"우리는 시장경제(Economie de marché)에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사회(Société de marché)에 반대 한다." 리오넬 죠스팽은 라로셸에 있는 프랑스 사회당 하기대학에서 이 원칙을 단호하게 천명하였다. 이 원칙에 따르자면 최대이윤의 법칙이 사회의 모든 영역



프랑스 사회당 정부를 이끌고 있는 리오넬 죠스팽 수상, 사회주의 인터내셔널(ISC)에서 전통주권자를 대표한다.

으로 침범해서는 안된다. 사회에는 자유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 외에도 공공서비스 영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라는 제3의 영역이 존재한다. 국가기구는 우선 안보, 사법, 행정, 치안 등 사회적 결속이 이루어지는 영역에서 기회균등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가기구는 일반교육, 국민보건, 계속적 직업교육·주거·통신·문화·국토관리 등에서 최대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도록 감독해야 한다. 이처럼 요구 수준이 높은 공공서비스 개념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은 일정한 실용주의를 동반하게 된다. 예컨대 수단방법과 관련하여 보자면 사적 영역에게 공공서비스를 대행시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관련하여 보자면 어떤 부문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제외되고 다른 부문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도 있다. 우리는 공공서비스, 공공영

역, 그리고 공공독점을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사영기업이 모든 면에서 공공기업보다 더 우월하다고 극찬하면서 사영기업을 물신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물신화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관료주의화 경향과 조합주의화 경향에 맞서서 싸운다. 우리는 공공서비스가 남세자들의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처럼 시민들 대다수의 정서를 표현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공공서비스에 담긴 평등주의 및 통합주의 정신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공공서비스가 통합유럽을 위한 영감의 한 가지 원천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철도의 상황을 생각해보건대, 우리는 공공서비스를 사영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영국이 너무 멀리까지 가버리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유연성”이 전반적 고용불안정의 대명사로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기업들이 현실적응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민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한다. 그렇지만 “적시조달”과 “브제고(無在庫)”를 지향하는 생산방식으로의 전환, 기업의 “심장부”를 제외한 모든 공정들

을 하청으로 내어주는 아웃소싱은 임금 생활자들의 지위에 엄청난 지장을 끌고 오고 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노동력은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임금생활자는 동시에 소비자이며, 인격체이고, 그리고 시민이다.

유연성에 대한 불가피한 요구가 마치 과거에 그려했듯이 노동을 마음대로 재단해서 고역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시간제 노동의 증가, 한시적 고용의 남용, 사용자들의 자유재량권의 증대를 불안한 심정으로 목격하고 있다. 국가기구는 노동시장이 침체된 시기에 대해서도 임금생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만 한다. 노동시장 및 노동조직의 유연화는 노사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유연화는 일방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되며, 합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쌍방이 모두 득을 보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

노동시간의 단축은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와 실업재앙에 맞선 투쟁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길을 열어준다. 노동시간 단축은 신자유주의 설교에 따라 초래된 고용불안정 속에서 매일같이 아동바蠹하는 것에 맞서는 한 가지 대안이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술발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단축은 장기적으로 유일한 개혁적 대안이다. 물론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의 선택, 특히 입법과 노사협상을 어느

정도씩 동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국의 노동관계 전통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독일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프랑스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사되었다. 그 외에 다른 예들도 있다. 그러나 신노동당은 이를만큼 열성적으로 이 고민에 동참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유럽·공공권력 또는 유럽·경제공간?

유럽연합의 건설과 관련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볼 때 이것은 21세기 사회주의자들의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다. 우리는 신노동당이 여기에 유보조항 없이 동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뻐한다. 특히 생-마로에서 유럽 공동방위체제와 관련하여 결정된 입장들을 토니 블레어가 수용한 점, 그리고 그의 정부가 유럽통일화폐 유로에가입하기로 결정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잠재적 불협화음의 소지들이 적지 않다.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은 유럽연합에게 일종의 “혼합정책”³⁾을 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조건들을 갖추어주기를 원하고 있다. 이 혼합정책은 적어도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혼합정책, 즉 지난 10년 전부터 알렌 그리스판 연방은행장과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휘하에 수행되고 있는



영국의 New Labour를 대표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혼합정책 만큼 효과적이어야 한다.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을 더 늘리기 이전에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체제를 개혁해야 하고, 국제 금융체계 및 통화체계의 개혁을 공동으로 제안해야 하며, 회원국들의 사회보장법과 재정법률을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 모든 문제들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어디까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가? 이것은 매우 빠른 시일 안에 밝혀지게 될 것이다.

의견불일치의 세 가지 원천

프랑스 사회당과 영국 노동당 사이의 의견대립은 크게 보자면 과거 및 현재 각 당이 처해 있는 국가적 상황의 차이점들과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 차이점들은 정치적 성격을 피

3) 경제성장을 유지 및 증대시키기 위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그리고 임금정책의 조합.

고 있다. 18년 동안 집권한 보수당을 물리치고 재집권하기 위하여 노동당은 세금납부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신중간 임금생활자 계층의 선회를 획득해야 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와는 달리 일회투표로 끝나는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는 노동당에게 연정전략 없이 좌파를 독점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한편, 보수당 집권기간 동안 노동관계법⁴⁾, 공공서비스,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의 현대화 부문에서 개혁이 누적적으로 지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사회보장 납부금을 인상시키지 않겠다는 토니 블레어의 입장을 존중해주면서도 노동당은 자신을 좌파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차이점들은 문화적 및 역사적 특수성들로부터 기인한다. 예전대 영국과 미국은 언어로 보나 역사로 보나 매우 각별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사회당과 노동당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의 중요성도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집권정당으로 되면서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계급정당이기를 그만두고 “국민대중의 정당”으로 되었다. 이들은 사회계급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옹호했지만, 또한 불가분적으로 전체 국가사회의 이해관계도 옹호하였다.⁵⁾

끝으로, 셋째의 “보수주의 혁명”이 영국의 경제를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재조형하였다. 경제력의 도시집중, 더 일반화 시켜서 말하자면 경제력의 서비스산업 집중,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특수성은 영국경제의 비교우위 사항으로 되었고, 노동당은 이 장점을 유지하고자 한다. 과거에 영국경제가 국제 노동분업체계에 참가한 양식은 제조업의 강세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 양식은 1979년에 이미 혼들리고 있었고, 셋째에 의해 완전히 붕괴되었다. 과거의 양식을 대체한 새로운 양식은 무엇보다도 금융산업 및 서비스산업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신노동당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수용해야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되었으며, 신노동당 정부에게 반드시 불리하게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따라 영국 수상은 실용주의의 찬가를 부르고 있다. 1998년 10월에 개최된 국회에서 그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였다. “좌파 경제정책도 없고 우파 경제정책도 없다. 잘 굴러가는 경제정책과 잘 굴러가지 않는 경제정책이 있을 뿐이다.”

이 원칙에 따라 좌파의 기본강령을 개

4) 1996년 당시 영국에서는 비숙련 노동자에게 시간급 2파운드를 자급하는 것이 법률에 어긋나지 않았으며, 채용된 제 2년 이내의 노동자는 사전 혜고통지나 금전적 보상 없이 언제라도 해고시킬 수 있었다.

5) 이에 비하여 영국 노동당은 토니 블레어가 등장하기 전까지 “노동조합당”的 성격을 유지하고 있었다.-의자주

혁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토니 블레어에 따르자면, 지금 시작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실행결과 및 경험에 조용하면서 계속 진화되어나갈 운명에 있다. 우리 프랑스 사회주의자들도 자기현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진리를 손에 들고 있다고 자처하지 않으며, 자유롭고 등지적인 논쟁을 통하여 다른 쪽의 성찰과 경험을 배우기를 원한다.

내가 발제의 첫머리에 제시한 공통점들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그리고 1997년 이래로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형을 고려해보건대 이같은 논쟁을 거치면서 마침내 차이점들이 극복될 것이며, 유럽사회주의당(PSE)이 새로운 종합명제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舊)좌파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말해본다면 현재 유럽의 좌파 안에는 세 가지 커다란 세력이 서로 구별될 수 있다.

첫 번째 세력은 자기 자신을 “좌파의 좌파(*la gauche de la gauche*)”라고 친명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세력들은 이 세력에게 “구좌파(*vieille gauche*)”라고 하는, 공감보다는 야유가 강한 별명을 붙여



주고 있다. 이 세력은 “선사시대의 정체성”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조류들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1930년대 경제위기의 와중에서 생겨나서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광범위하게 정착된 사회민주적 조절모델이 노후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이 볼 때, 이 모델을 구시대의 모델로 간주하려는 의지는 자유주의자들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 및 정부들에게 행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공세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구좌파”는 구모델의 비타협적 방어, 심지어는 그 확대적 용을 주창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지출 증대 및 공과금 인상, 사영부문에 대한 규제와 규범의 강화, 공공부문 고용의 확충, 생산수단 국영화 강령, 사회보장 국가체제의 양적 확대, 그리고 (이상적 유럽이라는 미명하에 형성되어가고 있는) 유럽의 실제모습에 대한 불만족 내지 적대감.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세력으로는 유럽 각국 사회민주당 내부의 좌파 세력과 사회민주당 외부의 좌파 세력, 특히 (프랑스 공산당의 일부,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재건당, 독일의 민사당 등) 잔존하고 있는 약간의 공산당 세력이 있다.

내가 볼 때 이 세력은 좌파 보수주의적·회고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대 세계의 도전들에 맞서기 위하여 불가피한 좌파의 이념적 및 실천적 자기개혁 노력에 등을 돌리고 있다. (8~10%, 그리고 여기에 극좌파를 합칠 경우 조금 더 높아지는) 이 세력의 득표율은 바로 이 세력이 전통적으로 좌파의 기반을 이루었던 사회계층의 불안심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흔히 이 불안심리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 사회계층은 제조업 생산노동자들, 공공부문 저직능 임금생활자들, 3차산업 중 "표준화 가능부문"의 피고용자들, 3비산업 노동자들을 포함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들은 우파 자유주의자들이 그리고 있는 검은 그림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것 못지 않게 기술혁명과 세계화에 의해서도 위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자유주의적 좌파

유럽 차원에서 확인될 수 있는 두 번째 세력은 자신을 "신좌파(nouvelle gauche)"라고 부르고 있다. 그러나 그

상대편 세력들은 이 세력을 "자유주의적 좌파(gauche lib rale)" 또는 "사회적 자유주의(social-lib rale)"로 부르기를 좋아한다. 이 세력의 지휘자는 두말할 나위 없이 토니 블레어이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좌파는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 안에 수많은 신봉자들을 헤아리고 있다.

이 세력은 사영기업들에게 최대한 행동의 자유를 부여해주려는 의지를 경제적 자유주의로부터 빌어왔다. 이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은, 행정관료들 및 정치가들이 아니라 사영기업가들이 기업 및 경제를 새로운 활동영역으로 재발전시키는 필수과제를 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을 확보해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은 공공지출을 축소하고, 세금과 사회보장 납부금을 인하하고,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시키고, 여러 가지 공공서비스를 사영화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적 좌파도 사민주의에 속하는 한 지류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기회균등을 최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보장을 통하여 이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시장의 결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유지하고 있으며, 50~60년 대에 동원된 방법들과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이들에 따르자면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오늘날의 세계에 잘 조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의 자연발생적 역동성과
조절역량을 과신하지 않는다.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혁신하고, 창출하는 역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옛날의 방법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야만 한다. 국가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조절주체들, 법률의 개선 등이 이런 방법에 속한다.

신사민주의

이 두 가지 시도들에 직면하여 유럽의 수많은 책임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에서 사회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다. 우선 이 모델은 오늘날의 세계에 잘 조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사회적 자유주의자들처럼 자본주의의 자연발생적 역동성과 조절역량을 과신하지 않는다.

이 세 번째 세력은 자신의 성격을 “현대적 사회주의(socialiste moderne)”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좌파 쪽의 비판자들은 이 세력을 “신케인즈주의 좌파(gauche neo-keyn sienne)”라고 부르고 싶어 한다. 이 이름은 어느 정도 합당한 이름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비판자들은 칭찬하기 위하여 이 이름을 입

에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이 세력에 속하는 사람들은 유럽연합의 건설을 통하여 그 틀 속에서 새로운 적극적 경제정책 및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단축, 여가시간의 확대, 지속적 교육, 시민적 삶에 대한 전체시민의 참여, 대다수 시민들의 문화재화 향유 등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기획은 유럽 사민주의 역사 및 운동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이를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려는 시도이다. 신사민주의 노선을 용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들 중의 하나는 이 노선이 좌파를 지지하는 다양한 유권자층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노선은 기술 및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으로 생성된 새로운 임금생활자 계층의 욕구와, 전반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전통적 산업부문의 임금생활자들을 동시에 포괄하는 종합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리뷰』 이번 호의 ‘심층분석’ 편에 소개된 유럽 각국의 실례들이 보여 주듯이, 여기 스케치된 이 세 가지 세력이 유럽 각국에서 발휘하고 있는 영향력

은 서로 다르며, 또한 이 세 가지 세력 중간에도 다양한 중간세력들이 있다. 그렇지만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세 세력 사이의 토론은 내일의 좌파, 즉 다원적인 동시에 통일적인 좌파의 모습을 그리는데 기여하고 있다. 좌파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이론적 문제점들에 새로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 할 것이다.

의견접근의 세 가지 요인

오늘날 분열되어 있는 우파와는 달리, 좌파 쪽에서는 분열로 가는 추세보다 통합으로 가는 추세가 더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도록 만드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

첫 번째 근거는 임금생활자 계층 내부에서 급진적 반자본주의 성향이 후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시민들은 시장경제가 선택사항(choix)이 아니라 근본소여(根本所與, donnée)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체제로 대체하고자 하는 기획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고 있다. 그 대신에 이들은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보다 더 문명화되고 더 인간적인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기획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자유기업경제에 대한 대안이 끔찍스러운 명성과 기억을 남긴 관리경제, “관료주의적 집단주의”라는 사실을 이해하

게 되었다. 그런데 사민주의자들에게는 금세기 내내 사정이 이와 달랐다. 독일의 사민당이 1954년에 맑스주의를 포기했음에 비하여, 프랑스 사회주의당은 1990년에야 비로소 생산수단 및 유통수단의 사회화라는 당의 기본원칙을 철회하였다. 그리고 영국의 노동당은 1994년에야 비로소 이와 동일한 목표를 담고 있던 당 정관 제4조를 철회하였다.

오늘날에는 알르뜨 라기예와 알랭 크리빈 만이 여전히 “국유화·계획화·자율화”라는 공식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폭력혁명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거부하고 있는데, 폭력혁명 없이는 이 세 가지 목표도 달성 불가능한 것이다. 비록 경제를 인간발전 및 사회진보에 봉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간직하면서도, 좌파와 노동운동은 시장경제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유럽 좌파의 공감대는 좌파 내에서의 의견차이를 일정 한도 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1997년의 재정위기 및 경제위기로 인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후퇴는 유럽 좌파가 상호접근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영국과 미국에 밀어닥친 자유주의 물결은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정당들 내부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 물결의 후퇴는 이제 사민민주주의 내부에 형성된 자유주의적 좌파와 신케인즈주의 사이의 대립을 완화시키라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사민주의 노선을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들 중의 하나는
이 노선이 좌파를 지지하는 다양한 유권자 층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1998년 9월 미국의 투자기금 LTCM이 가까스로 파산을 모면했을 당시 서방의 금융 엘리트들과 정치 엘리트들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간신히 피했다는 느낌을 가졌다. 이와 동시에, 시장은 엄청난 조직적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본격적으로 울트르게 되었다. 그리고 뉴욕과 유럽의 증권 중심지들에서 부풀고 있는 투자거품도 조만간 터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생겨나게 되었다. 비록 개입양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공공권력이 개입하여 이를 교정해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다. 신노동당은 1998년 10월 비인에서 국제 통화체계 및 금융 기관의 개혁에 대한 유럽 사회주의 정부들의 제안을 지지하였다.

이데올로기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구심력은 각국의 상충하는 이해 관계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원심력에

의하여 상쇄되지 않고 있다. 한편, 유럽 통일화폐 유로의 출범과 이것이 전전시키게 될 유럽통합은 국제무대에서 다른 거대 행위자들과 직면하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공동 이해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일은 불가피하게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세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것이 사회주의 및 사민주의 정당들의 접근을 강화시키는 또 한 가지 요인으로 될 것이다.

유럽의 좌파는 여러 가지 복안을 품고 새로운 세기에 당도하였다. 이제 우리는 각자 자신의 처지 속에서, 그리고 함께 유럽사회주의당(PSE) 속에서 이 복안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할 것이다. ♦